



한길교회 | 온전한 회복을 위한 9 가지 질문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온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회 5월 14일(금)전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온전한 회복을 위한 9 가지 질문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새로운 결심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을 다른 말로 “삶의 복음화” 혹은 “복음의 체질화”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 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잊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는 9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들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종교성들을 드러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정말 내 삶이 복음화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들에 답을 적어 내려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집회가 있는 5월 14일 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9 가지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신 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까지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담임목사 박찬섭 드림

첫 번째 질문 - 복음

증교	복음
나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 항상 죄송하다. 진리는 내게 자유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다. 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순종한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좋은 권면이 아니다. 복음이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다. 복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며, 여유있게 하고, 평강있게 한다. 나는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한다.

1.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선포를 기억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2. 복음이란 윤리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부족한 행위가 아니라, 무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사랑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문

두 번째 질문 - 순종

종교	복음
나는 순종한다. 따라서 나는 용납되었다. 내 순종의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정에 기초한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분에게 순종한다.	나는 용납되었다. 따라서 나는 순종한다. 내 순종의 동기는 감사와 기쁨에 기초한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한다.

1. 나의 순종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2. 내 삶의 공허함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나의 기쁨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문

세 번째 질문 - 기도

증교	복음
내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로 이루어진다. 또한 내 기도 생활은 단지 필요가 있을 때에만 뜨겁다. 기도의 주요 목적은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다.	내 기도 생활은 충분한 찬양과 경배로 구성된다. 기도의 주요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주의 뜻에 위탁하는 것이다.

1. 기도 생활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내가 가장 통제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신비로운 통치를 믿고 있습니까?

기도문

여섯 번째 질문 - 비판

증교	복음
나는 비판 받을 때 분노하거나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위협적 평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비판 받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평판이나 나의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따라서 나는 언제나 비판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또한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1. 만약 내가 비판을 받을 때 쉽게 분내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나의 정체성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기도문

일곱 번째 질문 - 성취

종교	복음
<p>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우상을 만든다. 나의 업적, 도덕성, 재정적 안정, 평판, 재능, 사회적 지위, 성공 등이 중요하여, 나는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p>	<p>나는 내 인생에 가족, 일, 재산,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많은 좋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 가운데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도 내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고 상실 될 때, 잠시동안 낙담하거나 슬퍼할 순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이것들로 인하여 결코 삶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p>

1. 내 삶에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기록해봅시다. 내게 가장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도문

여덟 번째 질문 - 시련

종교	복음
내 삶의 상황이 잘못될 때 나는 하나님 혹은, 나 자신에게 화를 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 삶의 상황이 잘못될 때 비록 나는 갈등하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모든 형벌이 예수님에게 내려졌던 것을 안다. 또한 그분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것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이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1. 나는 어떤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2. 내 삶에 시련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도문

아홉 번째 질문 - 소명 (직분)

종교	복음
<p>나에게 직분은 계급이요 내 신앙 경륜에 대한 인정이다. 나는 직분자로서의 나의 수고를 명예와 인정으로 보상받길 원한다.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심과 노력이다.</p>	<p>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직분자로 충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에 빛진자이자,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어떤 보상도 이땅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할 오직 능력은 성령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p>

1.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2.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소명을 기억해봅시다. 나는 이 소명(직분)을 무슨(어떤)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문